

나눔과 말씀, 감사와 사랑 올해 더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쌀 나누기 운동 '사르밧 프로젝트' 차세대 '추수감사절 패키지', '희망심기 캠페인'

온누리교회의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더욱 풍성하다. 나눔과 말씀, 감사와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두 가지 뜻깊은 행사를 개최한다. 첫 번째 행사는 감사의 쌀 나누기 운동 '사르밧 프로젝트'다. 농어촌미자립교회에서 쌀을 사서 온누리교회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들과 나누는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고, 농어촌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에서는 9월 26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 선정 및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봉헌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순은 쌀 20kg 한 포대 값인 6만5천 원을 헌금하면 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 배송하는 감사의 쌀은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진주시 농어촌교회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다. 현지에서 바로 보내는 감사의 쌀은 10월 초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두 번째 행사는 차세대사역본부 '추수감사절 패키지'다. 차세대 가정의 말씀으로 풍성

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 패키지'를 배포한다. 추수감사절 패키지에는 추수감사절 감티슈, 가스펠프로젝트 교재, 천지창조와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는 VR 헤드셋, 말씀식빵(9~12월), 희망심기 캠페인 저금통 등이 들어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과 차세대사역본부가 함께하는 '희망심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희망심기 캠페인'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아프리카 다음세대에 구호품(식량, 영양식품, 위생 물품 등)을 후원하는 행사다. 희망심기 캠페인 저금통은 차세대 '추수감사절 패키지'에 포함하여 전달된다. 희망심기 캠페인 저금통은 12월 말에 회수할 예정이다.

문의: 사르밧 프로젝트 02-3215-3434
희망심기 캠페인 02-2271-2248

추석 연휴, 이웃사랑은 한혈로

혈액 수급 위기상황 '주의' 근접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한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9월 15일 기준 대한적십자사 일일 혈액 보유량이 3.8일분으로, 혈액 수급위기단계 '주의'에 근접한 수치다. 혈액 수급위기단계는 일평균 혈액 소요 예상량을 토대로 1일분 미만 '심각', 2일분 미만 '경계', 3일분 미만 '주의', 5일분 미만 '관심' 단계로 분류된다. 적어도 5일분 이상 혈액을 비축해둬야 수급이 원활하다.

문제는 명절 직후 혈액 보유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명절 직후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지난해 설 연휴 직전(1월 23일) 4.5일분이었던 혈액 보유량이 명절 직후(1월 29일) 3.2일분, 일주일 후(2월 5일) 3일분 밑으로 내려가 '주의' 상황을 맞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한혈의집 90여 곳이 추석 연휴에도 특별운영 된다"면서 "나와 가족, 이웃이 수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혈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문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 1600-370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비스트 'King's Way' 막 오른다

9월 21일 이주민 추석집회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가 9월 21일(화) 온누리M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막 오른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러시아 등 15개국에서 온 이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에서는 각 나라 언어로 맞춤 제작된 찬양, 설교, 강의 영상을 배포한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 가정심방도 실시할 예정이다.

온누리M미션은 지난달 16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회'를 개최하고 하비스트 'King's Way'를 기도로 준비했다. 온라인 릴레이 중보기도회에서는 이주민과 이주민공동체의 기도제목을 확인하고,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 'King's Way'가 이주민들이 예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후원문의: 031-491-9650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2일~10월 31일 오전 9시~오후 9시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9월 22일(수)부터 10월 31일(주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는 평화적인 침묵기도 시위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전신청한 2~3명의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반대 및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기도문을 이용한 침묵 기도를 하면서 낙태 종식과 낙태 시술 중사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구한다. 피켓과 기도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에서 준비해준다.

온누리교회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섬긴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전체 목회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기도봉사자들을 돌보고, 기도운동에도 동참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타교회 교인은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사이트(www.40daysforlife.com, 02-727-2354)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은 목사(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담당)는 "더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뜻깊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2021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감 · 사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방역지침에 합당하게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사랑과 진심을 담은 소박한 선물이나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서로가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될 것입니다.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앗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같은 외적 요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것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사태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함과 회복과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국가적인 재난 중에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예언을 전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장차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지자의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찬양합니다(참고: 출 15:2). 이사야 선지자가 앗시리아 제국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요청하고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예언하였듯이, 우리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서 주께서 이 환난으로부터 반드시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지자는 이제 감사하는 주체를 ‘내가’에서 ‘너희가’로 바꾸어서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4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더 많은 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무리에게 네 가지 명령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4절). 특히 마지막 명령인 ‘전하라’의 원래 말은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열방의 이방 민족들도 과거에 듣고 알았으나 지금은 잊고 있으니 너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세계적인 재난의 시대에 이 세상의 구원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5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다시 온 땅에 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계적인 환난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그릇된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재난의 문제와 해답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시대보다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세례를 열정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과 만민들이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알도록 전하는 복음의 가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경배와 찬양 435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이사야 12:1~6.....	가족 중에서
설교	그날에 말하리라.....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온 세상 위하여(새505, 통268).....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그날에 말하리라

들어가는 말

코로나19와 함께 두 번째 맞는 추석 명절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고,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심한 고난의 현실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였습니다. 재난의 시대에서 맞는 금년 추석에 우리도 이와 같은 위대한 감사와 찬송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앗시리아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139:7~12.....	다같이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새413, 통470).....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24~26	가족 중에서
설교	인생의 영원한 비전.....	설교자
찬송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경배와 찬양 25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인생의 영원한 비전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으로”: 요셉은 자손 3대를 보며 110세를 살았고, 그의 임종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였다가 한 인간의 입관으로 끝을 맺는 창세기는 겉으로 보면 미완의 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위대한 희망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요

셉의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24절)는 첫 번째 고백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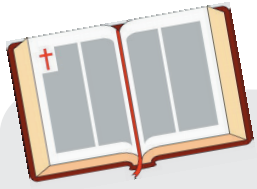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두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는 말은 ‘누군가를 시켜 불러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셉은 삶의 목적을 애굽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상황을 따라 살지 않았고 섭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일원이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삶으로”: 요셉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세 번째 고백을 남깁니다(24절). 요셉은 애굽이라는 세상

으로부터 단순히 자신을 구별시키려는 분리 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은 유업, 곧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당부하며 출애굽을 예고한 것입니다(25절).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남겨진 우리에게 더욱 뚜렷한 유업이 메아리칩니다. 첫째, 인생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둘째, 세상적인 성공이나 현실적인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셋째,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에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동물은 순간만을 살지만, 인간은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고, 자녀의 자녀를 기다립니다.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기다리고, 첫 월급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를 기다립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삶의 종점에 이르렀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은 것만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는 아일랜드 출신 프랑스 소설가이자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주인공은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언제 어떻게 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한 주인공은 고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떠나자”고 주장하며 갈등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결국 고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 전령을 통해 “오늘은 못 오고 꼭 내일 올 것”이라는 전갈만 보냈습니다. 끝내 고도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작가조차 “고도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주인공의 대사가 이 기다림과 싸우는 이들의 고민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은 거야. 이 무서운 혼란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네. 우리는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논평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실존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인간의 본질과 본능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고도’라는 단어의 원제목을 보면 스펠링이 다섯 알파벳(Godot)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알파벳 두 개를 빼면 하나님(God)이 됩니다. 저자는 아일랜드 개신교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식 발음으로는 ‘갓’이지만 영국식 발음은 ‘갯’입니다. 저는 고도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을 묘사한 것은 암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고,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다림의 대상은 곧 하나님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고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죽음의 그늘 아래 생명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은 기다리지만, 그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처해있고,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둠은 우리에게 축복과 회복을 줍니다. 우리는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회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밤에 쉬어야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것이기에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대낮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돈과 방황에 빠지게 만드는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지기를 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가복음 1:67~79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어둠과 죽음에 속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다림입니다.”

랍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어서 왜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이들이 있을까? 왜 무고한 생명이 그처럼 죽어갈 수 있을까? 왜 아프리카 대륙에는 기근이 계속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명확한 원인과 해명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보상을 줘도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빛입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 주는 빛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성인이 되기 원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고, 자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죽음 앞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성취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합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은 자원과 에너지와 노력이 투자되는 것이 아마 생명공학일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한 꿈을 가지고 그 기술과 신약을 발견하기를 많은 사람이 기다릴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죽음의 그늘 아래 생명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니라”(78~79절).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생명을 기다리는데 생명의 빛이 되는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해가 아닙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성경에서는 해와 빛을 발하는 별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라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셋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

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돈은 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만 기다리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에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진정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

사가라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의 대가로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사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출생하자 사가라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 가지 특이한 내용이 발견됩니다.

첫째, 사가라의 기다림에 대한 성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잠시 말을 못 하다가 이제 입이 열려서 찬양하게 되면 기다림에 대한 성취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텐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가라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줄 “내 아이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의 출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메시아가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로 올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14면에 계속)

한국 교회에 비친 차별금지법의 허상

평등으로 포장해
공유 ‘기준’ 바꾼다고
차별이 사라질까?



“동성애를 반대하지
동성애자들을
내몰자는 게 아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에 하나 되고 있다. 타이틀로만 보면 교회가 차별을 금지하지는 법에 반대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속 사정을 깊이 알지 못하면 교회가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분들과 지지자들은 교회가 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반대하는 이들을 혐오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문자적으로 보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 같은 법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이처럼 혐오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를 반대하는 것일까? 한국 교회는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와 평등사회를 위해 앞장서 왔다. 노비제도, 조혼, 축첩 첼페에 앞장섰고, 6.25 한국전쟁 상황과 그 후에 피난민과 고아를 돌보는데 헌신하였고, 절제 운동과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하였다. 일부 교계 목회자와 학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이 법을 제지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평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하였던 교회들마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반대입장을 가진 한국 교회 대다수 목회자와 성도들이 과연 ‘혐오’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

올바른 사회참여... 속속 합류

몇몇 활동가들의 거짓된 정보와 선동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허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차별이란 의식적이고 내면적인 언어로써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로 차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별이 진정 구제받아야 할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증명 가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로 차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현재 법 체계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라는 것은 딱히 증거로 제시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한 사회에서 상식과 윤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서 벗어난 소수가 그 기준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시선이나 반대 의견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 윤리기준에 어긋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적 도덕 윤리 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와 경험으로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육이란 이러한 보편적 윤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러한 마음의 고통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소수가 다수에 의해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그 보편적 윤리 기준을 바꾸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다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벗어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다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는 분명히 정통성 있는 사회의 기준을 바꾸어 다수자들의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한 지상과 방송 뉴스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였다. 중학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한 이후 친구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뉴스였다. 그리고 기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 시절은 다양한 이유로 따돌림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친구를 집단으로 차별하는 이유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친구를 차별하는 것은 동일한 차별이므로 모두 공평하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떤 이유이든 친구를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친구를 차별하는 청소년들을 이러한 법으로 모두 처벌할 것인가?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청소년 시절에는 도덕과 윤리 의식을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시기이다.

법은 도덕과 윤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 된다.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는 법언을 무시하고 법이 도덕 윤리적 판단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가 설 곳이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를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차별금지법의 허상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데서 발견된다. 차별금지법은 국민 생활의 모든 예측

불가능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인간 삶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평등 개념으로 차별을 규정할 때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구별까지 차별로 오해하게 된다. 정통성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반대하는 의견 표현을 ‘행위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해석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개념에서 벗어나 도리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 종교, 표현, 학문과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우리 헌법체계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바라보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사회 밖으로 내몰자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의학적 부작용과 가정의 붕괴를 막자는 것이 그들의 인권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차별금지법의 허상은 성별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증거 기반’ 차원이 아닌 ‘사회 문화적 기반’ 차원에서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은 역사와 과학에 의해 증명된 성이다. 인간의 염색체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있는가? 성별의 구분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느낌이나 성향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중심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성(Social Gender)’을 합리화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미 사회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다시 모든 법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중심에는 인간 스스로 성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무서운 이념이 숨어있다.

‘모호한 성’ 개념 법제화 시도

현행 헌법은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옹호하며, 가족 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모호한 단어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이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이미 서구 사회에서 경험한 것

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가정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과 학력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기업과 학교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더 나은 보수를 기대하며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성실과 보상의 원리를 훼손할 위험이 많으며 이로 인한 혼란은 국민 생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위의 사전 의견을 들어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고, 심지어 입법부와 사법부로 하여금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 및 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다. 이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타 헌법기관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정 기관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한 나라·미래 위한 행동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고귀한 이상임에 틀림없지만, 차별금지법은 취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먼저 제정한 나라들에게서 차별이 사라진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차별금지의 가장 기본인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차별의식은 결코 이러한 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차별은 다수가 공유하는 기준을 바꿈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윤리 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무분별한 입법으로 초래되는 혼란에 처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의 허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재훈 담임목사

* 이 글은 9월 15일자 국민일보 ‘미션 up 코리아’에서 전제했습니다.

크리스천과 정신건강 1. 불안

이정환 목사
(송파B공동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저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당연히 주인님이시죠.”

지선이는 자기애가 넘쳤다. 본인이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믿었다. 온 우주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고 생각하는 아이였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주목해주시지 않으면 일부러 다리를 빼면서까지 관심을 받으려 했다. 남의 인정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무도 본인을 봐주지 않을까봐 불안해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지만, 과하면 인격장애가 될 수 있다. 지나친 자기애를 전문용어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일명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 나르시시즘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어딜 가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며 잘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한다.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거만하고 오만방자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본인이 가장 잘나야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본인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헐뜯기 바쁘다. 억지로 일을 꾸며서라도 주목을 끌고, 관심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건 원죄의 DNA 때문이다. 이 중 하나가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탄은 걱정과 근심을 불어넣는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악운이 곧 내게 닥칠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굿을 하고 부적을 사다 붙이지만, 그래봤자 두려움만 더 커진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사탄이 말을 걸어올 때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을 무찔러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로부터 마징가Z 전자시계를 입학선물로 받았다. 태양당이라는 금은방에서 구매한 시계를 직접 손목에 채워주셨다. 그때의 감격이란! 지금은 돌아가셨고, 시간도 오래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내가 그랬듯 나의 아들들도 선물을

좋아한다. 나와 아내가 특별한 날 특별하게 준 장난감들은 아이들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만의 보물상자 안에 고이 넣어 보관했다. 아이들은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주는 선물을 오래 기억한다. 아무 의미 없는 선물은 받을 때만 좋아하지, 금방 잊고 만다. 고마움도 기억도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평안, 축복, 고난, 위기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아무 때나 선물을 주시지 않으신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 핸드백, 밍크코트, 아파트, 스마트폰, 자동차, 노트북 등 천 가지 정도는 거뜬히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을 죄다 나열하고 나면 결국 한 가지 항목에 도달하게 된다. ‘평안’이다. 평안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쌓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평안한 삶을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누가 내 돈을 다 빼앗아가면 어찌지?’ 불안하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누가 내 자리를 탐내면 어찌지?’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 그렇다. 돈도 명예도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평안은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

평안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는 금물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8-9).

이분법적 사고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눈다. 맞거나 틀리거나, 좋거나 싫거나, 검은색이거나 흰색이거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편과 다른 편, 우리 순과 다른 순, 예배만 드리고 가면 형편없는 신앙인, 교회에서 봉사하면 훌륭한 신앙인,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오면 거룩한 사람, 안 들고 오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사람 등 제멋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분류한다. 이분법적 사고는 스스로 평가할 때도 작용한다. 사업에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포기

한 사람이고, 오늘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도 힘들겠지 생각한다.

경진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결혼도 기도로 준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다. 의처증이 심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다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통제불능이었다. 경진이는 졸지에 애 딸린 이혼녀가 됐다. 경진이는 이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만사형통이어야 하는데, 결혼 실패가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가끔은 이 세상이 이분법에 의해 돌아가면 좋겠다. 위기를 예측하기도 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없을 테니 세상 살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구에서는 가로수 한 그루도 마음처럼 자라지 않는다.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각각의 현상에 작용한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마음만 더 꼬일 뿐이다.

둘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길다. 하나님은 빛이고, 사탄은 어둠이다.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사탄과 가까워진다. 사탄은 불안을 조장한다. 사탄과 가까이 있으면 덩달아 불안해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 걱정, 돈 걱정, 일 걱정을 한다. 주님의 보혈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된다.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심해질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찬양).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고 평안하게 해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된다.

셋째, 말씀 가까이 하길다. 나는 가장 힘들고 두렵다고 느껴질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느껴지면서 힘이 나기 시작한다. 나는 큰 수술을 앞둔 성도님에게, 군대 가는 형제에게, 슬픔을 당하신 분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 읽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눈물을 흘린다. 말씀이 그분들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그의 마음을 위

로하고 축복하기 때문이다. 군대시절 힘들고 고된 동계 유격훈련을 할 때면 나는 항상 두려움이 가득했고 불안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아직도 동계 유격훈련 앞에서 압송한 말씀이 기억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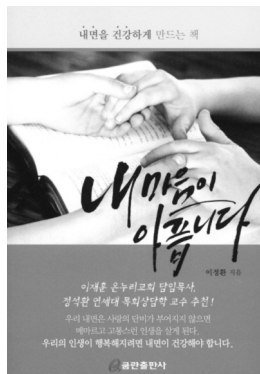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거듭 외웠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용기가 생겼다. 훈련을 하면서 전우들을 위해 기도했다. 말씀으로 생긴 담대함이 주변인들에게도 위로를 줬다.

말씀을 의지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덕분에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다윗은 덩치로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확신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큰 차이가 있다. 종교인은 형식적이고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 종교인은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 평안이 없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담대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를 좇다 보면 나머지는 금방 잊는다. 세상의 화려함을 좇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처럼 통장에 넣어둔다고 머물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잊는 건 한순간이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인으로 살면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읽어보면 좋을 책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정환 저 | 쿰란출판사
| 10,000원

명화로 읽는 성경

야곱의 꿈과 천국행 사다리

니콜라스 디프레의 ‘야곱의 사다리’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주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을 꾸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 꿈을 소재로 대화할 수 있을까?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는 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무신론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꿈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체험(體驗), 즉 어떤 개인이 몸으로 겪는 실제적 경험 아닌가.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저서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지 않으냐고 묻는다.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거기에 휘말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아주 오래된 사실을 잊어버렸다... 합리적인 지성인은 아직도 그의 의식이 정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무의식’과 ‘미지의 세계’

꿈이 오늘 이야기 주제이다. 그중에서도 야곱의 꿈이 오늘의 소재이다. 이삭의 차남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세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마땅히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 동네인 하란으로 피신시킨다. 그곳에 있는 친정아버지 브두엘과 오라비 라반에게 야곱을 위탁할 속셈이다.

오늘 묵상할 그림은 니콜라스 디프레가 그린 ‘야곱의 사다리’이다. 니콜라스 디프레(1495~1532년)는 프랑스 초기 르네상스 시절 화가이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활약한 아비뇽의 예술가 중에서 니콜라스 디프레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디프레의 그림과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다.

이 구절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낯이 저물어 잠이 든 순간부터 시작된다. 심리학적으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라면,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야곱의 가

출은 그가 어머니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나와 하란으로 향하는 기나긴 행로에 몸을 맡긴 야곱이 해가 저물자 지친 몸을 누이려고 길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든다.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주로 활동을 한다면, 낯이 저물고 잠이 들면 무의식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낯이 저무는 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꿈을 꾸다’는 것은 야곱이 무의식과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있는 사다리가 나오는 꿈을 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락하고 있었다.

디프레의 그림을 보라. 좌측 하방에 돌베개를 하고 누운 야곱의 시선이 우측 상방을 향하고 있다. 대각선 방향으로 걸쳐 있는 사다리와 천사들을 지나 맨 위의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과 마주하고 있다. 디프레는 야곱의 복장과 천사,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감싸는 구름까지 흰색으로 단순화해서 통일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디프레는 좌측 상방에서 우측 하방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양분하고 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 하단이 야곱이 누워있는 지상의 세계이다. 오른쪽 상단은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천상의 세계다.



니콜라스 디프레가 그린 ‘야곱의 사다리’ (1500년경, 프랑스 아비뇽 뽀피 팔레박물관 소장)

사다리는 수직과 상승을 상징한다. 사람은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늘에까지 다른다. 상승의 목적지가 하늘이므로 자연스레 승천(昇天)을 상징한다. 여기서 사다리는 ‘하늘과 땅의 결합’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 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천사는 우리를 신들의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해 준다. 칼 융의 수제자였던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여사의 말을 빌리자면 “무의식의 신성한 힘과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연결” 역할을 맡는다.

그렇다면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천사와 사다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꿈이 바로 천사가 타는 사다리다. 꿈은 우리를 미지(未知)의 심층 심리 세계로 인도한다. 꿈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와 만나게 하는 천사이자 사다리인 동시에, 천사가 타는 사다리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축복을 내리신다. 동시에 야곱과 늘 함께하시며, 늘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디프레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현존하시며 오른손을 들어 야곱을 축복하신다. 왼손에는 세계를 상징하는 지구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 28:13-14).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감동적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창 28:15).

야곱은 돌을 베고 누워있다. 돌은 이중적인 상징이다. 하나는 ‘우상의 상징’이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돌을 세우거나 평평하게 해놓고 풍요의 신인 바알신이나 대모신(대母神)인 아스테르테를 섬겼다.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 야곱이 베고 누운 돌베개처럼 ‘신적인 능력’을 상징한다.

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창 28:16-17).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벧엘’이라고 불렀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이 기둥을 세운 돌은 신성한 돌이요,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돌이다.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깊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성한 장소(聖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든지 누워있는 곳이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 신성한 장소(무소부재; 어디서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라는 것이다.

칼 융의 말처럼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과학적인 지식, 합리적인 지성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대 지성인들은 마음속 무의식의 영역을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평상시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표출된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대변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도 야곱처럼 꿈에서 무의식의 위대한 힘을 만나기를 간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 분명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초신자입니다. 아직 예배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어색하고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교 때 많이 나오는 ‘자유함’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자유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자기합리화’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과 자기합리화를 어떻게 구별 하나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솝 우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보았다. ‘참 맛있겠다’는 생각으로 포도를 따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너무 높아서 따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여우가 저 포도는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하고 돌아갔다.

이 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사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믿음(실패, 오류)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꾀한 대표적인 예이다. 자기합리화는 기존의 신념과 새로 인지한 새로운 증거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든 그 선택과 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거나 명백한 판단 착오였음에도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우기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신념과 행동에 대한 일관성의 욕구가 있어서 인지의 조화로운 상태를 원한다. 그래서 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조화로운 상태, 즉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도님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자기합리화라고 봐야 할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자기합리화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피할 여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존재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자기합리화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더없이 직면하게 만든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

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실패, 연약함)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자기합리화를 시도한다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아담의 범죄로 돌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아담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 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현주소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이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인지의 조화

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합리화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선의 가면을 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없이 파괴하게 만들 것이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현주소가 죄인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자기합리화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 자유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는 청년들의 신앙고민이나 궁금증에 대해 대학청년부 담당 목회자들이 조언과 답을 건네주는 코너이다. 고민 및 사연 보내실 곳: joo@onnuri.org



최대홍 목사
(여호수아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STOP! NO! RETURN!

외도는 부부간의 신뢰와 결혼 생활을 철저히 깨뜨릴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힘을 지닌 행위이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깊은 교류까지 외도로 분류하는 추세이다. 정서적으로 가까워졌을 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이성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서적 친밀함을 서로 나눌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외도의 영역에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이성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활발한 장소와 모임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만난 이성이 가볍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나 격려, 공감은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무엇보다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감을 깊이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충동질 될 때가 있다. 사회 생활하는 중에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이성의 위로와 격려는 결혼 관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음속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자신이 배우자와 겪는 갈등과 가정 안에서 느끼는 불편, 자신이 소홀히 여겨지는 등의 사적인

어려움까지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한다. 배우자와 나눌 수 없는 이야기까지 사회적 관계에서 만난 이성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대화가 깊어지고, 단둘이 식사하게 되고, 이후 술과 좋은 분위기가 곁들여진다면 견줄 수 없는 외도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부적절한 관계는 본질이 가려진 허상의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드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관계는 결혼의 언약은 애써 무시한 채, 감정에 충실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의 결과는 자신과 배우자, 가정에 큰 고통을 가져온다.

사회적 관계에서 맺게 된 이성과 만남이 외도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기혼자들은 간단한 규칙을 상기하며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성과 단둘이 너무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지 않겠다’, ‘이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겠다’, ‘이성과 단둘이 차에 탑승하지 않겠다’ 등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외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부부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한다.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 울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외도는 자신과 가족,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에게까지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외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외도가 발생하게 되면 부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외도 이후 부부가 서로 노력해도 결국 갈라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만일 지금 외도의 유혹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과 배우자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결혼의 울타리가 여전히 견고한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결혼 울타리는 매우 든든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결혼 울타리를 넘어가는 외도를 선택한다면 되돌아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혹독할 것이다. 외도의 유혹이 극에 달했던 경험이 있는 한 남성이 이렇게 고백했다.

“외도의 유혹이 너무나 향기로운 향수같이 나를 감싸 안았어요.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를 최상의 행복으로 이끄는 것 같은 강렬한 유혹을 경험했었어요. 눈 한 번 감으면 될 것만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다행히 이 남성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 상황까지 갔다면 그 자리를 박차거나 관계를 끊어내고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외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외도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감정의 이끌림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결혼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 감정과 이성을 구분하는 성숙한 행동이 필요하다. 성숙한 행동과 미성숙한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 행동이 감정적으로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 결과가 매우 고통스럽고, 부정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멈추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다.

외도는 부정적인 결과가 매우 확실한 위험한 관계 행동이다. 외도의 유혹이 최고의 향기와 달콤함으로 다가와도 “STOP! NO! RETURN!”을 생각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의 결혼 울타리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행복과 친밀함은 노력을 통해 얻는 열매다.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과 존재의 공허감, 극심한 스트레스, 노골적인 이성의 유혹 등 다양한 이유로 외도의 유혹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상담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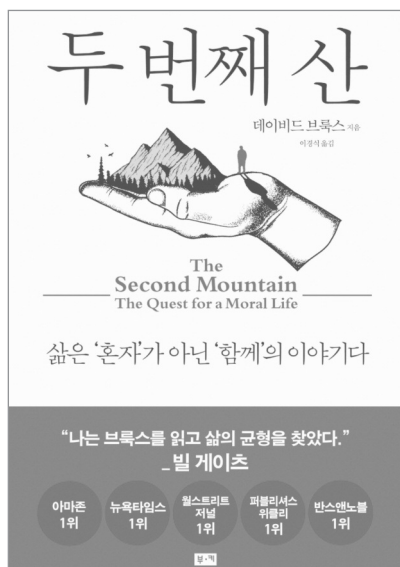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을 향한 추락



〈두 번째 산〉
데이비드 브룩스 저 | 부키 | 22,000원

오늘 소개하는 책은 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 〈두 번째 산〉이다.

저자는 인생에서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산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남들에게 존경받기, 행복한 가정 꾸리기 등과 같은 소위 성공이라 불리는 산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산에 오르고 싶거나 오르는 중이거나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인생의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은 “어? 이 산은 내가 목표했던 그 산이 아니었네?”라며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 마치 트리나 폴러스의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작은 애벌레처럼 구름에 가려진 산 정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올랐다가 실망하고 내려오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그 동화책에서 애벌레가 올라간 산은 산이 아니라 기어오르는 애벌레들의 탐이었다. 그저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과 몸부림으로 만들어진 탐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처럼 인간도 첫 번째 산 정상에 우뚝 섰으나 자기가 발견하고자 했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내 허무함에 빠져 버리게 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심오한 여정이 있음을 깨닫고 두 번째 산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두 번째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어떻게 산을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가? 몇 년 전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블루 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 산이라고 해서 높고 멋진 산을 기대했는데 산은 없고 계곡처럼 내려가기만 했다. 안내원에게 “왜 산이라고 하면서 계곡이냐?”라고 물었더니 위에서 보면 계곡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기가 막힌 산이라고 했다. 정말 내려가는 산도 있었다. 이처럼 저자는 두 번째 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확립하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오름의 산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갈 수 있는 하강의 산이다. 첫 번째 산은 정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내가 정복당하기 위한 산이다. 사람들은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왜 산을 내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려가야 하는지, 내려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두 번째 산은 스스로 내려가기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상승과 오름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결코 자의로 하강을 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이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떨어지는 추락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방법이다. 바닥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면 두 번째 산의 본모습이 보인다. 바닥에서 쳐다본 산의 모습은 파란 하늘에 흰 구름, 새들의 소리와 고요한 적막 가운데 펼쳐진 자연환경으로 나를 압도한다. 이제까지 정신없이 산을 오르느라 보지 못했던 조물주의 아름다움이 나를 덮는다. 그동안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멀리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주변에 있음을 보면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첫 번째 산에서 가졌던 성취감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두 개의 산을 비교하면서 아주 깊

은 영적 담론을 펼쳐낸다. 첫 번째 산은 인생의 전반전으로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사는 중년 이전의 삶을 말한다. 그러다 사고, 실패, 건강의 이유로 그 산에서 추락하는 인생의 후반전에 도달한 사람이 두 번째 산으로 하강한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산에서 추락하면 죽는 줄로 아는데 실제로 죽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성공과 야욕이다. 자존심의 죽음이고, 교만과 죄에 대한 죽음이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죽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일부러 추락시키신다. 그것은 끝없는 심연으로 내려가는 절망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추락이고, 더 넓고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밑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인생 밑바닥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이 책은 유대인이 쓴 책이라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발견되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인생의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 책 필독을 강력하게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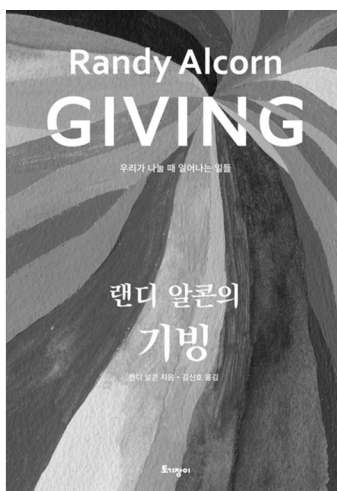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신간 소개

아프가니스탄 형제가 보내온 기도편지

가장 멋진 인생의 비결 ‘나눔’



〈랜디 알콘의 기빙〉
랜디 알콘 저 | 토기장이 | 22,000원

험, 실제 사례로 설명한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5).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딤후 6:10a).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눔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주제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섬기는 EPM(Eternal Perspective Ministries)의 대표 랜디 알콘은 나눔은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방법이자 투자라고 말한다.

“우리의 최대 자원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들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나온다. 그곳이 바로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세상은 뭐든지 많이 가지는 것이 멋진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나눔이 멋진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건강한 크리스천의 재정관과 나눔이 어떻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성경적인 분석과 자신의 경험, 실제 사례로 설명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J 형제입니다. 저는 탈레반과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2011년 탈레반과 싸우는 스웨덴 병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와 성경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사려고 했더니 책방주인이 급서한 성경을 왜 사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읽고 싶다면서 책방주인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성경을 구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12년 가족들과 종교지도자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난민으로 그리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있는 두 명의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프가니스탄 지하 회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인데 탈레반에게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두 친구는 탈레반을 만나면 분명히 처형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2000년대 초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왔고, 의료, 교육, 지역 사회 섬김, 교회 사역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탈레반은 기독교 개종자들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친척 중에 3명이 군인으로 탈레반과 싸웠고 그중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탈레반의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님을 믿게 된 형제 자매들이 탈레반의 핍박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도해주십시오. 탈레반의 통치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없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탈레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전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그리스와 유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아프가니스탄 40일 중보기도에 올라오는 기도문을 인용했습니다.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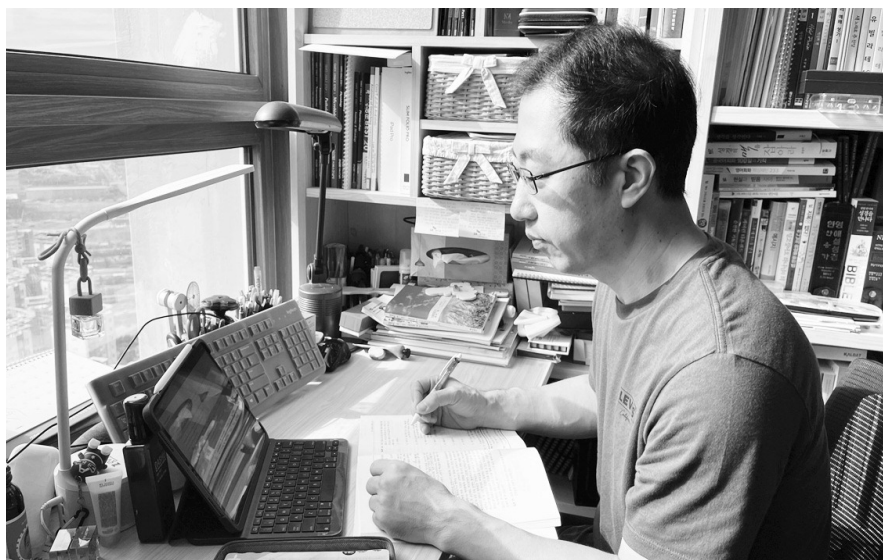
OBC '하나님의 성품' 수로 간증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은혜의 잔치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에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성으로 로켓을 보내고, 태양계 바깥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인간이 아무리 날고뛰어도 결국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인간이 마치 우주의 중심에서 있는 양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심판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말세의 때, 조그마한 심판에서조차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허무하다. 죽음 앞에 매달려 초라해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OBC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더 많이 찾



이상욱 성도(천양사역공동체)가 OBC 하나님의 성품 강의를 듣고 있다.

아왔다는 점은 역설이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감히 꿈도 꾸기 어려웠을 요일과 시간에 열리는 OBC 강의들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식으로 들을 수 있었다. 아이스쿨의 많은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이자 감사한 기회였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찾아 강의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

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다.

OBC 하나님의 성품 강의는 오래전 일대일 제자양육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시간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굴곡도 있었고, 방황도 있

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나에게 남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나와 내 인생을 인도해가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OBC 하나님의 성품 강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줬다. 이 모든 과정을 감사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가 힘들다.

OBC '하나님의 성품' 과정을 강의해주신 박성은 목사님께 감사하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열심히 강의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시간 감동의 소감문을 읽어주셨는데 그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조원들의 간증과 소감 발표도 인상 깊었다. 각자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다.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 볼 수 없는 은혜의 잔치였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인생에 개입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실 것을 확신한다.

/ 이상욱 성도(천양사역공동체)

코로나19, '돌봄'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호스피스 참가자 간증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도하심

2009년 3월 제2기 온누리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그해 9월부터 왕십리에 있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봉사를 다닌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어색해서 선배 봉사자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러 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조금씩 어르신들과 친해졌다. 발 마사지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 어떤 어르신은 “누가 나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나? 가족들도 힘든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눈물까지 보이셨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고마운 분도 계셨다.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정 호스피스 사역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암 말기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거주하는 병원이나 가정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이다. 두 명의 봉사자가 환자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주로 그분들 옆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손을 잡아 드린다. 가슴 아픈 일도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 봉사자가 임종을 앞둔 노인들을 찾아가 발마사지를 하며 위로하고 있다.

헤어집이다. 어떤 분이 “나도 빨리 나아서 퇴원하면 권사님처럼 즐겁게 봉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국에 가신 일이 가장 가슴 아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스피스 사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거나 중단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시어머니 돌봄이었다. 시어머니는 고령(91세)이고, 여러 질병(파킨슨병, 대장암,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셨다. 내가 일주일 내지는 열흘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서 돌보고 오곤 했다. 그런데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급하게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면회

가 안 되었다. 얼굴조차 뵈지 못하면서 자식들의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가족회의 끝에 서울 우리집으로 모시게 되었다.

우리집에 40여 일 계시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지셨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어머니가 소천하기 3주 전에 본 교회 목사님과 가족이 모두 모여 임종예배를 드렸다는 점이다.

어머니는 우리집에 40여 일 동안 머물면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천사 며느라. 이제 평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스피스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호스피스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절대 아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보람 있는 사역이다.

/ 변경순 권사(남대문교회)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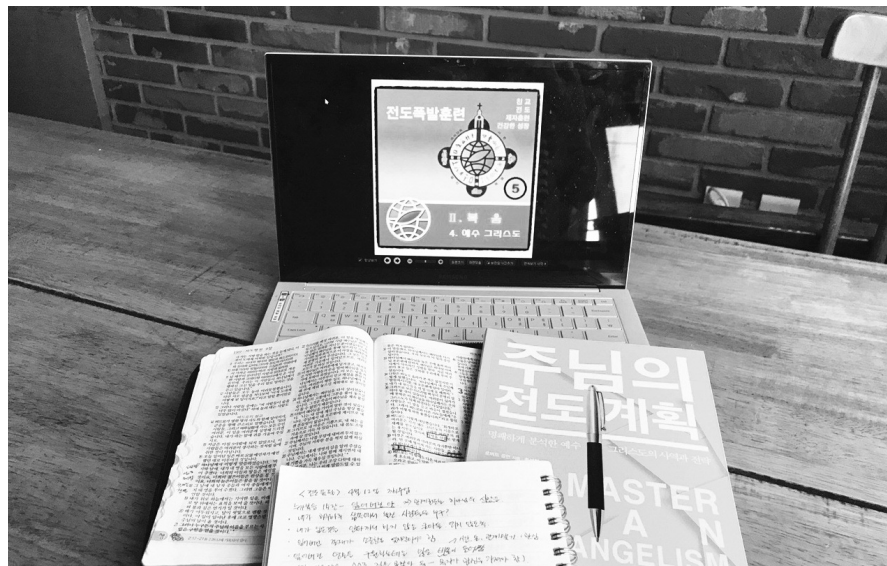
전도폭발훈련 수로 간증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용기

지난해 봄 나를 유난히 예뻐해 주시던 시고 모님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고모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시부모님과 시할머님을 빨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내 마음과 달리 쉽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태신앙이었던 내게 구원과 복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래서 전도는 나와 멀리 떨어진 일 같았다. 전도폭발훈련을 받는 지인들을 보면 전도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시댁과 남편의 전도를 피할 수 없게 만드셨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온전한 신자가 되기까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다. 시부모님께도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늘 기도만 하면서 마음의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다 시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늘 전도 앞에서 소심했던 내 생각이 달라졌다. 조금씩 전도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전도폭발훈련에 초대받게 되었다. 복음 전문을 들으



백정희 성도(마포공동체)는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면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처음으로 전도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밀려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전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전도폭발훈련 31기에 참가하면서 전도는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동안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의 열심이나 의로 전도하려 했던 교만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대로 살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제껏 피해왔던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용기가 생겼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그의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면서 나의 진심을 전했다니 남편도 전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았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전도폭발훈련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수료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직은 전도자로서 모든 것이 서툴지만 전도 수첩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만나주실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신뢰한다.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

/ 백정희 성도(마포공동체)

코로나19, 'CGNTV'와 함께 극복합시다!

CGNTV '다큐, 본' 시리즈

일터 나온 목회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CGNTV가 선보인 '다큐, 본' 시리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본-생존과 소명 사이'와 위기청소년들의 이야기 '다큐, 본-넘어진 소년에게'를 꼭 한번 시청하기를 추천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일터로 나서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다큐, 본-생존과 소명 사이에서'는 일하는 목회자 이곤민 목사(하늘바람교회)와 최주광 목사(교회, 흠어지는 사람들)의 일상을 소개한다. 이곤민 목사는 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건설 현장에 나가는 것이 자존심도 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엿한 5년 차 콘크리트 타설공이다. 금요일에는 건설 현장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금요일예배를 준비한다. 콘크리트 타설공 일용직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도 한다. 일하는 틈틈이 건설 현장 일용직들과 음식점 직원, 배달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게다가 보호자가 퇴근할 때까지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보조도 하고 있다.

최주광 목사는 7년 차 목수다. 처음에는 공



최주광 목사(교회, 흠어지는 사람들)가 자립을 위해 인테리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 이름도 몰라서 해봤는데 책임감을 인정받아 인테리어 현장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주광 목사와 이곤민 목사처럼 교회 밖으로 나와 일을 찾는 목회자들이 많다. 이곤민 목사와 최주광 목사가 일하는 이유는 생계유지가 주요한 이유지만, 교회 밖을 나와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목회자에게 일은 목회와 똑같은 소명이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일을 합니다.”

‘다큐, 본-넘어진 소년에게’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시작된다. 이 카페는 최승주 권사와 조호진 집사 부부가 5년 전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문을 연 곳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삶이 힘든 아이들이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광호 형제는 이 카페에서 일한다.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던 이광호 형제가 최승주 권사와 조호진 집사 부부를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됐다.

“저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구속돼 갇힌아이와 함께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은주(가명)와 몇 번이고 자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 형욱이(가명) 같은 위기청소년이 전국에 77만 명이나 있다. 최승주 권사와 조호진 집사 부부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하고 큰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탁한 아이들의 눈물을 닦는 일입니다.”

CGNTV ‘다큐, 본’ 시리즈를 시청하면서 일터로 나온 목회자, 도움보다 비난이 익숙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자. CGNTV ‘다큐, 본’ 시리즈는 CGNTV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에서 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 346대 후원

CGNTV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

CGNTV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들어온 후원금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 346대를 후원했다.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CGNTV의 모든 콘텐츠 시청할 수 있는 IT 장비다.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는 지난 7월 15일 1차 발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CGNTV 후원기획실 관계자는 “CGNTV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CGNTV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은 종료되었지만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 후원은 계속된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는 아래 계좌로 후원(한대당 15만원)을 하거나 CGNTV 후원기획실로 문의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CGNTV 드림온 ‘썸머크리스마스’ 캠페인으로 셋탑박스 346대를 선교지에 후원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0-059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선교사 편지

대전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에서 보내주신 드림온플러스 셋탑박스를 설치하고, 오늘 새벽 처음 켜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와 ‘성경강해’ 말씀을 들으면서 후원해주신 공동체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선교한 7년여 동안 교회를 개척했던 일과 오늘 CGNTV의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감격스러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을 때 유튜브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미친 듯이 따라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예배와 찬양을 CGNTV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전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강찬송 선교사(네팔)

CGNTV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 다큐 <기적의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

CGNTV가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성악가 출신 김재창 선교사가 인도 빈민가 가족들을 모아 합창단을 꾸리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이 9월 19일 일요일 오후 10시 20분, 9월 21일 오후 8시 10분에 방영된다.

CCM 명곡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의 탄생 비화와 주인공의 감동 실화를 담은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9월 18일 토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또한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의 실제 주인공 리드보컬 ‘바트 밀라드(Bart Milard)’의 인생 간증 에피소드 4

편을 묶어, 9월 18일과 2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방영한다. 클래식 명작 영화 <벤허>도 9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1, 2부로 나눠 방영한다. 식사를 배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 DWD(Delivering With Dignity)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기적의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은 9월 20일 오후 9시 20분에 방영된다. 이외에도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김영우의 스윗사운즈:Hymnstory>,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키즈 프로그램 <버미제니>도 추석 특집으로 편성했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12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10만 원이다. ‘피플퍼즐’, ‘부부치유&연합’, ‘부부의 성’, ‘자녀교육’, ‘가정제도의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749-6981

딩동! 선물 왔어요, 맞춤전도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국내 최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가치관 공과 세미나 ‘딩동! 선물 왔어요’가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적 성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와 박순애 목사(딩동 선물왔어요) 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10월 2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교재비는 별도다. 문의: 02-

2078-326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전략을 알려주는 온라인 ‘맞춤전도 세미나’가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와 원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전략’, ‘NEW 전도 플랫폼 소개 및 적용’ 등을 주제로 고정민 이사장(복음의전함)과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문의: 02-2078-3456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

9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는 9월 28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선교사들과 선교 리더십, 현지 크리스천들이 보내오는 소식과 기도문이 하루 한 편씩 게재된다. 손정래 장로는 “정권이 바뀌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찾고, 성령님이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L 선교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엄청난 통제로 인해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난민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9월 26일 개강 ... 서빙고 실시간, 양재 동영상

온누리전도학교가 개강한다. 서빙고반 9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반 9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전도지(최고의 행복)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온누리 전도학교 비전’,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

복 기본전문’,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전문’, ‘상황별 접촉점과 반대 질문’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와 조별 모임이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서빙고반 9월 26일, 양재반 10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5219-8707(서빙고)
010-9001-6243(양재)

Zoom 효율적인 운영 심화과정 특강

9월 25일, 10월 2일 오후 1시, 줌(Zoom)

가정사역본부 아름다운동행 사역팀에서 ‘Zoom 효율적인 운영 심화과정 특강’을 연다. 9월 25일(토)부터 2주 동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17일 있었던 ‘효율적인 비대면 사역을 위한 원데이 특강’의 심화 과정이다. 비대면 교육 전문가 박재현 소장이 줌(Zoom) 실시간 상호학습 방식으로 강의한다. 대상은 지난 원데이 특강 수료자, 강사, 사역팀장, 줌(Zoom) 운영자, 디지털 도구와 비대면 사역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다. 9월 19일까지 회비 2만 원을 입금(하나은행 573-910009-62304)하고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의: 010-9041-5538

온누리 호스피스 특강

9월 30일~10월 21일 목 오전 10시 30분

온누리 호스피스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9월 30일 김양자 회장(무지개호스피스 연구회)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다’, 10월 7일 김도봉 목사(샘

병원 전인치유교육원 교문) ‘이웃을 위한 섬김의 지혜’, 10월 14일 박성천 목사 ‘섬김의 기쁨’, 10월 21일 이혜원 실장(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호스피스 봉사자의 소진예방과 자기돌봄’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3412-7966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5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 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이다. 10월 9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원리를 통해서 축복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남편 010-3476-7716,
아내 010-4827-5298

■ 사르밧 프로젝트 협력 농어촌교회 편지



/ 김종구 장로(광의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간 무탈하셨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들을 잘 돌보기로 전남 구례까지 소문난 성도님들이라면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사르밧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 전남 구례 광의면 광의교회 김종구 장로입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잘 짓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농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성으로 키운 쌀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쌀 맛이 너무 좋다”는 인사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2019년 쌀값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금전적으로만 보면 손해일지는 몰라도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처럼 기쁘고 보람찬 일이 없었습니다. 광의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광의교회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광의교회는 1908년 5월 10일 창립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시골교회가 다 그렇듯이 청장년이 많이 줄었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많이

“최고의 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많아도 예배를 나뉘드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뉘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이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광양에서 두 가족이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도 유기농 농사법을 지키느라 애를 썼습니다. 저는 농사 짓고 나오는 부산물을 전부 땅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벼대도 썰어 논에 넣고, 밀을 키우면 밀대도 논에 넣습니다. 해마다 땅에 좋은 보약과 유기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벼대를 소 키우는 사람들에게 팔면 돈이 되지만 최고 좋은 쌀을 위해서 땅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최고의 쌀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농사가 잘된 논에서 수확한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이 쌀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 QT스쿨 수료 간증



/ 이지현 성도(강남D공동체)

나는 늘 순예배에서 순모님과 권사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삶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공동체 중심의 QT스쿨이 진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나에게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민도 없이 QT스쿨을 신청했다.

첫 강의부터 내 QT에는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적용’이었다. QT스쿨 수업을 들으면서 곧장 QT를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았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누구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나의 이익과 의로움, 세상의 풍습과 윤리적인 지침이 선택의 기준이었다. 시간, 물질,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았다. 그런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QT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깨달았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고, 막연하다 못해 막막했

바로 ‘적용’이었다!

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

QT는 이미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간인 것 같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매일 나를 깨워주는 훈련인 것 같다.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 삶을 운행해왔던 이기적인 사고방식들과 세상의 세계관들과 씨름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거름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요즘 QT하면서 정말 행복해지고 있다.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QT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평안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남미영 성도(성북공동체)

한 치 오차도 없는 계획하심

모태신앙인 나는 한 번도 창조론을 의심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었다. 창조론에 대해 항상 믿음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야”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바빴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내 믿음만 강요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아쉬웠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내가 섬기고 있는 영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창조신앙스쿨을 수강했다.

창조신앙스쿨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해주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증명되는 창조의 비밀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정확했기 때문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

각 속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주,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배웠다.

매주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느꼈다. 특히 지구의 자전축에 대한 강의에서 지구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들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탄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더 일찍 들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는다.

열정을 다해 강의 해주신 강사님들, 준비해주시고 섬겨주신 스태프들께 감사를 드린다. 과제로 읽은 <궁금해? 궁금해!>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읽으려고 한다. 아이들에게 진화론이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창조론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을 아이들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세미나’ 간증



/ 카나자와 야스히로 목사(오사카제자교회)

회개와 기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질문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오사카와 고베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기도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기도세미나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질문과 답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기도세미나 강사 김하중 장로님의 메시지였다.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미워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같은 조건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뿐이다. 이번 기도세미나 모두(冒頭)에서 김하중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회개는 우리를 죽음의 경계에서 삶으로 이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와 기도를 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비즈니스 성공, 세상적인 부, 나를 위한 축복만을 구하는 번영신학에 기반한 기도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기 경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난과 곤란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세상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과 답을 얻어야 한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크리스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가 적다.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적다. 단 한 번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일본 기독교와 교회의 부흥은 회개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강의를 해주신 김하중 장로님과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내몽골 미스터 리(Mr. lee)

이병현 장로
(양지 온누리교회)

내 나이 75살, 선교 본부에서 그만 은퇴 하라는 요청이 왔다. 고 하용조 목사님과 박승철 선교사의 묘 소 앞에서 선교지에서 죽기로 약속했는데 그대로 은퇴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집을 싸서 내몽골로 갔다. 내몽골 호텔에 서 집을 풀고 있는데 공간 둘이 나를 찾아왔다. “당신 선교사 아니야? 당신 미스터 리 맞지?”라며 나를 압박했다. 순순히 그렇다고 할 수 없어서 “한국에 가서 ‘미스터 리’ 하고 불러봐라. 열 사람이 있으면 다섯 명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며 시치미를 뻗지만 나를 추방하려고 작정하고 온 공간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집을 싸는데 아내가 나에게 성경을 건네줬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공간들에게 말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한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돕는 게 선교사의 일이다. 내가 여기 있지 못할 이유가 있나?”

공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일단 돌아갔다. 내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 2명이 아웃리치를 오겠다고 했다. 허가를 받으려고 후생국에 방문했는데 “당신 선교사로 찍혀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돌아오는데 적십자 건물이 보였다. 적십자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장소를 제공해주고 환자까지 불러 모아줬다. 환자 400여 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120여 명이 뇌전증 환자였다. 알고 봤더니 근처에 뇌전증

환자 200여 명이 있는 동네가 있었다. 보통의 환자들은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뇌전증 환자는 기도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우리는 환자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웃리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다. 17살 소녀가 찾아왔다. 뇌전증이 나왔으며 이제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고 감사인사를 하고 갔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이병현 선교사가 뇌전증 환자를 고쳤다’고 소개됐다. 뇌전증이 나왔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주민까지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그 뒤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대환영 해줬다. 덕분에 한 학교에서 온누리교회 어느 다락방과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2년 뒤 미국에서 80명, 한국에서 30명, 대련에서 70명이 아웃리치를 왔다. 작은 도시라 모두 머물 수 있는 호텔이 없었다. 고민하다 주민들을 찾아가서 민박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웃리치 팀원들과 ‘마주치면 인사하자, 아침에 기도하자, 식탁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세 가지를 약속하고 4박 5일 민박을 했다. 아웃리치 팀원들의 행실이 어찌나 좋았는지 주민들이 ‘뭘 하는 거냐, 뭘 믿는 거냐’며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기회다 싶어서 민박을 제공한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뇌전증을 고치는 것도 학생들을 돕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민박을 한 십여 가정의 교회를 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더스킨의 새로운 선교 모델

이순희 권사
(성북공동체)

올여름은 잠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화장품 포장하느라 너무 바빴지만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다. 선교지로 보낼 화장품을 포장하는 일이 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선교지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더스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선교 모델 덕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최선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다.

몇 년 전 중국 선교사님들이 모두 추방당했다. 그중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이다.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추방당한 이후 오랜 기도 끝에 미안마로 가셨다. 미안마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 더스킨에 동역을 요청하셨고, 그때부터 한국에 오실 때마다 조금씩 더스킨 화장품을 미안마로 가지고 가셨다. 미안마에서 더스킨 화장품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현지에서 더스킨 화장품의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미안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목사님과 더스킨은 재정 문제 해결과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역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자가 나타났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재정으로 사역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셨다. 후원자님은 미안마에 들어가는 화장품을 후원하시기로 하셨다. 그 목사님은 재정 걱정 없이 미안마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미안마로 많은 물량의 화장품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후원자님께서는 미안마에서 화장품 판매를 통한 선교사역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다. 요르단,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이스라엘, 모잠비크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를 원하기만 한다면 도울 수 있게 됐다. 더스킨은 좋은 물건을 만들고, 후원자는 물건을 후원하고, 선교사는 선교하면 되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반가운 동역자들이 또 생겼다. 지난번 온누리신문 기사를 보고 온누리교회 와이미션팀에서 연락을 주셨다.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지를 도울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더스킨 화장품 후원을 통해 선교지를 돕고 싶다고 하셨다.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선교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누리신문에 더스킨 기사가 나가고 계속 반갑고 고마운 연락이 오고 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글도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한다.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도 울림이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재정을 염려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 모델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더스킨과 선교사, 후원자가 한 팀으로 묶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끝까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라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더스킨은 선교사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문의: 010-2439-2092

신앙에세이

흘으시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확증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한충희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50여개 국 4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30년이 된 두란노해외선교회(TIM)를 맡고 있는 필자의 요사이 묵상 초점은 현 국제정세를 볼 때 과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이란, 미안마,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큰 변화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

고 믿는다. 이제 하나님은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을 억압해 왔던 ‘국가 이슬람주의’와 같은 철용성을 흘으시고 흔드신다.

난민과 이주민, 피난민 등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약 8천만 명이나 된다. 수십만, 수백만의 아프간 엑소더스(탈출)도 우려된다. ‘흘으심’의 의미는 자국에 있을 때 엄격했던 국가 이슬람주의가 타국에서는 모국의 주권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복음전파)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흔드심’의 의미는 이들이 자국에서 느꼈던 공동체의 압박과 이슬람의 규율적 삶에서 벗어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정체성과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은 본국 귀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슬람 신앙보다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쓰기 마련

이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경계가 느슨하다. 가정 단위의 전도나 가정예배, 그들의 상황(context)을 고려한 복음 전도를 위한 맞춤형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결국 현재의 모든 국제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Mission of God)’라고 한다. ‘Missio’는 ‘보낸다’는 뜻이다.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낸다는 게 본래의 의미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구원사역의 핵심에 이미 선교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미 도래하고 확증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곳이 선교지이다. 외국을 가는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이주민, 다문화사역,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모든 종교, 모든 인종과 민족, 난민과 이주민, 남녀노소 등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축구나 농구처럼 이제는 토탈 선교, 올코트 프레스싱(전방위적 압박수비) 선교를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이 선교 현장으로 그대로 전달(온오프 하이브리드)되고 사용되는 융합선교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민족과 국가, 인종(난민)과 선교사(한인과 현지) 사역의 경계와 구분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선교(crossover mission)’를 해야 한다. 이제 부르심과 보내심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온누리공동체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온누리공동체 전체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들은 기다리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오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기다렸습니다. 사가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가라는 메시아의 출생으로 기다리던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가라의 찬양과 예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모두 과거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과거시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요? 헬라어에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실하기에 과거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지만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돈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

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갈망하며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교계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을 기다린다는 고백은 자포자기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절망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핍박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본 회퍼가 나치 치하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일부를 발췌해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약혼녀에게 보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기다리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여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으로 꼭 채워진 쓰고 무거운 잔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선택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망설이지 않고 감사하게 받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과 태양 아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너무 잘 보고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고통스러운 감옥과 압박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풀려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고 무거운 잔을 주셔도 감사히 받겠다는 기다림입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빛 되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분이 우리에게 줄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어둠과 죽음에 속한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압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다림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창조,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근원



정성수 집사
(대전온누리교회,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학생 때부터 교수님들께 한결같이 듣는 말이었다. 당시 내게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들여도 진단조차 내리지 못하던 그때 그분들은 단 몇 분 만에 척척 진단을 내리고, 치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웠기에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말이 충격이었다. 이제는 나 역시 학생들에게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말하는 처지가 되었다. 오늘날 엄청난 양의 과학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고백이다. 피조세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심에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생명의 기본단위인 세포에 대해 무지하다. 나 또한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소기관이 있고, 인간이 만든 어느 기계장치보다

훨씬 많은 10억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순한 지식만 알 뿐이다. 세포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1:500,000 축척의 서울시 전도(全圖)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평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세포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확대해 들어가면 그 규모와 정교함이 어마어마하다. 내가 아는 아주 부분적인 지식 범위에서도 그 작은 세포가 최소 서울시 이상의 도시와 같은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시청, 발전소, 전기 송전, 유지보수 시스템, 화학 공장, 조립공정, 분해, 교통, 통신, 검문, 경찰,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이 세포 내에 있다. 세포 소기관보다 작은 단위인 분자 모터 같은 장치 단백질에도 적용되고 있고,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및 연합되어 기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경이 그 자체이다.

필자가 진료하는 대상인 폐포도 마찬가지다.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의 기능 단위이다. 폐포는 직경 약 0.3mm

크기의 미세한 주머니로, 폐포벽의 두께는 가스교환이 잘되도록 0.01mm 정도로 얇다. 호흡에 따라 폐포가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는데 1시간에 약 1천 번 정도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셈이다. 폐포보다 10배나 두꺼운 A4 용지라면 찢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폐포는 수십 년 동안 손상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 얇은 폐포벽에는 모세혈관이 배관 되어 있고, 기가 막힌 스프링 구조가 갖춰져 있다. 폐포의 스프링 구조는 들숨에 의해 당겨진 스프링에 탄성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날숨은 거저 쉬게 된다. 이런 스프링 구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내릴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발생한다.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산소는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헤모글로빈이다. 산소를 있어야 하는 조직에 운반해줘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운반 차량이 적혈구이다. 적혈구라는 아주 큰 대형 트럭에 산소를 붙들며 매어 싣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 좌석은 조직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산소를 놓아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폐포는 이렇게 철저히 적혈구와 모세혈관과 연계되어 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

되므로 호흡은 폐와 순환기, 골수와도 동시에 처음부터 완벽히 존재해서 서로 연합해야 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부분적인 지식이라도 마음을 열고 조금만 깊게 바라보면 누구나 생명현상이 경이이고, 하나님의 설계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신앙의 토대는 과학적 지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과학을 모르기에 성경적 창조신앙을 모른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과학을 깊이 이해할수록 창조신앙이 구체화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적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한다. 오늘날 진화와 창조가 과학논쟁의 화두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창조과학 논쟁은 사두개인에 의해 촉발된 부활 논쟁이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과학으로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도 익숙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해했다고 하셨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 근원이다. 결국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와 세계관과 믿음의 문제이다.



CGNTV와 함께 풍성하고 복된 추석 보내세요

영화 '바나나쑥의 기적'

성악가 출신 김재창 선교사가
인도에서 빈민가 가족들을 모아
합창단을 꾸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9월 19일 (주일) 밤 10시 20분 방송



* IPTV, 케이블에서만 시청 가능



* IPTV, 케이블에서만 시청 가능

영화 '벤허'

로마 제국 시대, 유대 청년 벤허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은 고전 명작 (1,2부 연속 방영)

9월 20일 (월) 오후 5시 30분 방송

미주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기적의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음식으로 섬기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9월 20일 (월) 밤 9시 20분



다큐 '아이 캔 온리 이매진' 간증 스토리

머시미의 보컬 바트 밀라드의 간증으로 듣는
CCM 명곡 '아이 캔 온리 이매진' 탄생 뒤에
숨겨진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

9월 25일 (토) 오후 1시 20분

